

## 산림청, 소속기관 여름철 산사태 재난·안전대책 종합 점검

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과 함께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.

※ (참석) 산림재난통제관, 5개 지방산림청,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, 산림항공본부,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

이날 회의는 여름철 기상 현황과 전망 및 이번 주말부터 예보된 강우 전망을 공유하고, 산사태취약지역, 2025년도 산불·산사태 피해 복구지역, 산림사업장 등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의 산사태 재난 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히,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각 소속기관의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시 지방정부 주민대피지원단과의 협조체계를 점검·유지해 위기 상황 시 주민 대피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
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산사태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시·도별 산사태 위기경보(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)를 발령하고,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또한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시설은 이용객의 예약을 취소하고(국립시설의 경우 위약금 면제), 등산로 등 주요 시설은 사전에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.

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"각 소속기관의 산사태 재난 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, 소속기관장을 중심으로 위험징후 발생 시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"을 강조하며, "산사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."고 말했다.

산림청	산림재난통제관실 산사태방지과	책임자	과 장 정종우 (042-481-4270)
		담당자	사무관 박봉관 (042-481-8844)